



2대리구 신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ber nard

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5주일 2022. 02. 06. (다해) 제2307호

제1독서 이사 6,1-2 7,3-8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5,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매천본당 주임 | 이재현 요한 신부

천주교 신자로 살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느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또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체험하고, 삶이 변합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자각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이사 6,5)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이사 6,7) 이렇게 주님을 체험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도구로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이사 6,8)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받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1코린 15,3)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처지를 밝힙니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1코린 15,8-9)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사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1코린 15,10)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합니다. 고기잡이에는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시몬이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하느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사 안에서, 특히 미사성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모시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30차 세계 병자의 날이 우리가 병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친밀함과 봉사 정신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이번 제30차 세계 병자의 날을 위하여 선택한 이 주제는 “자비가 풍성하신”(에페 2,4) 하느님께서 우리가 먼저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병자들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의 최고 증인은 그분의 외아드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스승님께 파견받은 사도들의 사명에서(루카 9,2 참조) 병자들을 걱정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는 여러분의 손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위대한 품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병자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보다 언제나 더욱 중요합니다. 아픈 이의 질병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친밀함을 그들이 언제나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병자의 날은 우리가 돌봄 센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수한 선교사들이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원과 진료소와 요양원도 세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애덕을 가시적 형태로 드러내고, 제자들의 사랑으로 증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소중한 매개입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보건 사목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봉사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아픈 이들에 대한 친밀함과 사목적 돌봄은 임명받은 특정 사목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이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병자 방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위로의 직무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마태 25,36)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세례 받은 모든 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며 모든 병자들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의미와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모든 보건 의료 종사자의 마음에 자비가 넘쳐흘러 그들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형제적 친밀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뿔!

투스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 이현미 보나벤투라 수녀

주위 상황과 내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입을 모아 “네 나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라고 외치는 듯한 때가 종종 있다. “네가 힘을 낸다고 되는데 아냐. 이제 포기하지지?” 이런 마음의 소리도 슬금슬금 올라온다. 즉 여러모로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다. 이럴 때 나는 시편 89장 18절을 떠올린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이시며 당신 호의로 저희의 뿔을 쳐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뿔”에 밑줄을 그어본다.

갓 수도원에 들어온 청원자 때 성무일도서의 시편들을 모조리 읽어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다. 성무일도서의 시편은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이라 이렇다: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이시니, 당신을 힘입어 우리 뿔들이 치솟나이다.” 시편 전체의 문맥은 차치하고, 이 “치솟는 뿔들”이라는 심상에 갑작스레 매혹되었다. 코뿔소의 외뿔, 버팔로의 위압적인 뿔, 수사슴의 고고한 뿔, 유니콘의 아름다운 뿔, 세계사 만화에서 본 바이킹 투구의 뿔 등등, 모든 뿔의 형상이 주는 에너지가 그 구절에서 마구 느껴지는 것이었다.

당시 구체적인 내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수도생활 시간표를 따라가면서 나름 노력하며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했어도, 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달려 힘이 부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은 순간, 내 마음 안의 뿔이 부러져 나간 자리에 멋진 새 뿔이 돌아나 당당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또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하느님께서 거기 응답하시는 듯한 25절을 발견했다: “진실함과 내 사랑이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치솟으리라(최민순 역).” 바닥에 누워 힘들다고 동동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자, 일어서고. 아빠가 있잖니?”라고 하시는 듯한 하느님의 토닥임과 응원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약함으로 쓰러져 누워 다시 “뿔”을 높이 쳐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인다. 또 하느님께 희망을 둔 신앙적 긍정을 무너뜨릴 것 같은 상황들, 무엇보다 나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부정적 전망에 직면했을 때 이 구절은 강력한 힘이 된다.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나쁜 용과 짐승들도 뿔이 있다. 그 뿔은 악의 힘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 역시 하느님 권능의 뿔을 가졌다. 한껏 “뿔난”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그 녀석들을 이기셨으니 나도 그분 힘으로 내 뿔을 치켜들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안다.

이젠 이 구절을 다 되뇌일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 “뿔!”하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 진정 이 “뿔!”은 나와 하느님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를 요약한 암호라고 할 수 있겠다. **궤**

오종례(吳宗禮) 야고보는 충청도 은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주교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리고 장성한 뒤로는 가족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야고보는 결혼 직후 전라도 고산에서 살았는데, 진산에 살고 있던 형을 찾아갔다가 형과 다른 교우 여럿과 함께 1839년 7월에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끌려간 야고보는 관장 앞에서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관장이 “너는 아직 젊은 나이니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놓아주겠다.”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주를 섬기는 행복을 알고 있는데, 어찌 형벌이 두려워 천주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러자 관장은 달콤한 말로는 그를 배교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고문을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간 오종례 야고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갖가지 형벌을 받았으나 꿋꿋하게 이를 참아낸 다음 사형 선고글을 받았다. 이는 그가 오래 전부터 원하던 일이었다. 반면에 그는 형이 배교하는 것을 보는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다.

옥으로 돌아온 야고보는 다른 증거자들과 고통을 나누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을 옥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형 집행일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야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였다. 그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종례는 아주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가족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이웃에게도 전교하였습니다. 또 입으로 십계를 외우면서 조상의 가르침을 버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문초를 받으면서도 아주 큰 기쁨이 마음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요망한 괴물을 청명한 세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오종례 야고보
(1821-1840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45. 혼인의 사랑 ⑭

“모든 신비가는 초자연적 사랑과 천상의 사랑의 상징들을 우정이나 효도, 또는 봉헌보다는 부부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감정] 고전들에서 ‘열정’으로 불리는 욕망, 느낌, 감정들은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인간으로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 주셨는데 당신의 인간적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열정으로 또는 열정에 이끌려 실행한 행위 자체입니다. 부부 사랑은 모든 정서 생활을 가정 전체에 이로운 것으로 그리고 가정의 공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정 구성원의 정서 생활이 중대한 결정과 가치를 억누르거나 흐리지 않는 감수성으로 변할 때 가정은 성숙해집니다. (『사랑의 기쁨』 142-146항)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2년 1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3.2(수)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장 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만원) | 문 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종교철학 산책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	성경 첫걸음 그리스도인들의 삶
14:00 ~ 16:00	하느님에 대하여 성사론	초대교회 세상살이	예언자들이 전한 하느님의 편지 현대 영성과 토마스머튼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믿음과 사랑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스티로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식기, 종이 타올 등)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6호 정답

1. ㉔ 2. 네리아의 아들 바룩, 여호야킴 3. ㉔ 4. 그달야

두려워 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7일(월) 19:30 꾸르실료 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8일(화) 11:30 계산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2월 7일(월) 11:00 성모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9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2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2.13(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갖는 평화로운 '침'과 재충전의 시간

기간: 3.6~8 / 3.17~19 / 3.26~28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구반장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미사,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2.12~14 / 2.19~22

자연순례피정: 3.5~7 / 3.19~21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사범꽃꽂이, 칼림바, 발성법,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사진수업, 난타,
제대꽃꽂이, 고전무용,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
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9(수)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월~12월 /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사회사업팀, 650-3529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 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616-2141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킵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5대 암검진

주소: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문의: 790-0660(8:30~17:30)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이영국 비뇨기와
전립선 | 방광 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투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안 마 바 우 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 · 신경계 · 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담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안세화(플로리아노) 주교
1938년 2월 9일
- 최시동(세례자 요한) 신부
2020년 2월 12일

행사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기간: 3.2(수)~3(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2.17(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육 | 모집

2022학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모집

기간: 2.6(일)~20(일)까지
대상: 중1~고3대학일반 / 등록비: 2만원
문의: 본당사무실(매년 갱신 필수, 입시반은 1년간 개근해야만 대신학교 지원 가능)
개학 미사: 3.13(일) 14:00 신학교 대성당

2022년 황금 성경대학 모집

기간: 3.8~5.31(매주 화)
주간반 10:00 / 야간반 19:30
과목: 예언서
강사: 윤일마 수녀(성바로로팔수도회)
문의: 황금성당, 762-1700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재능 기부 전문상담사 모집

자격: 관련학과 석사 및 2급 자격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마감: 2.11(금) / 문의: 250-3100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마감: 2월말까지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2월 중순~6월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로CPE센터, (010)4996-5508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바오로딸 2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2.19(토) 15:00~16:30
주제: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중독 전문가에게 듣는 명쾌한 중독 이야기
강사: 홍성민 신부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2.14(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미사통상문 이해(교재있음)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6차: 2.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센텔 성서 모임 수강자 모집

개강: 3.7(월) 10:00 모세오경
3.8(화) 10:00 역사서
장소: 샬트르성바로로수녀원(대명동)
문의: (010)5726-1733

채용 | 안내

국우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사용 가능 자,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325-0904 / (010)5414-7997

칠곡가톨릭병원 외과 전문의 채용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전문분야: 유방·갑상선 초음파 및
시술(VAB), 하지정맥류 등
문의: 320-2079, 2122

한국성지 167 완주
2.18(금)~2.20(일) 전주교구3일
2.21(월)~2.24(목) 수원·청주교구4일

제주성지순례 3일/4일
2.04(금)~2.06(일) 2.07(월)~2.10(목)
2.14(월)~2.16(수) 3.06(일)~3.08(화)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개원 37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엘렉트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정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행,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 들 짝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wedmate.co.kr 이 호 택(야고보)

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모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